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관찰, 분석, 기술하고자 하며 나아가 의문문과 억양의 관계에 관하여 주로 영어와 비교함으로써 일반언어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억양이란 연속된 말 (connected speech) 에서 목소리의 높낮이에 일어나는 변화 (Jones, 1960 : 275)를 뜻한다. 억양이 문장의 의미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는 방법에는 통사적 (syntactic) 인 것과 어휘적 (lexical) 인 것이 있다 (Ladd, 1980 : 137). 이 중, 통사적 접근방식은 억양이 문법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서술문, 의문문 등의 문장유형을 표시하는 역할을 비롯하여 기저 구조의 통사적 표지 또는 구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주로 다룬다. 이에 Liberman (1967)을 전후하여 여러 연구가 있다. 어휘적 접근방식은 억양이 문법과는 상관없이 의미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에 Pike (1945)를 전후하여 여러 연구가 있다.)

그리고 억양의 분석방법 또한 크게 두가지가 있다. Sweet(1892)와 Jones (1909), 그리고 Jones의 연구방식을 이어받은 Armstrong and Ward (1929)에서부터 시작된 영국의 분석방법이 하나요, Pike(1945)와 P. S. Wells (1945), 그리고 Trager and Smith (1951)에서 시작되는 미국 구조주의의 분석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Ladd, 1980 : 9~10). 영국의

주 1) 억양과 통사적 구조나 말하는 이의 태도, 감정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이미 Sweet (1892 : 37-42)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다.

분석방법은 문장전체의 음조 (tune)를 하나의 기능단위로 간주하여 분석할 때 문장전체의 음조를 두 부분, 즉 문장강세에 선행하는 머리 (head)와 몸 (body) - 문장강세를 받는 핵음절과 문장강세 뒤에 오는 나머지 음절들 - 으로 나누어 분석하기도 한다. 이들은 억양의 형태를 주로 점과 곡선으로 표시한다. 이에 반해 미국 구조주의에서 채택한 분석방식은 말하는 이의 음고 (pitch)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네 개의 음소적 음고층위 (phonemic pitch-level)로 나누고 이 음고층위 음소 (pitch-level phoneme)의 연쇄로 억양을 기술한다. 그리고 이 음고층위 음소는 1, 2, 3, 4로 표시한다.

그러나 이같은 억양의 연구는 주로 영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말 억양에 관한 연구는 영어에 비해 무척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말 억양에 관한 이전의 연구로는,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표현 기능면에서 접근을 시도한 Lee (1964)와 이 현복 (1974, 1976, 1982, 1984)이 있고, 억양 전반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 허웅 (1970), 최 현배 (1971), Gim (1971), 박 창해 (1963), 김 승곤 (1983)이 있으며, 억양을 주제로 하지는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억양의 역할에 관해 언급한 Chang (1973)과 장 석진 (1981, 1983)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말 억양에 관한 전체적인 파악은 없었으나 이들 연구가 본 연구의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 연구의 내용은 본문에서 필요할 때마다 인용, 소개될 것이다.

이 논문은 통사적 접근방식을 택하여 억양이 문장의 문법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일단 문장유형별로 분류하여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 기술한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접

근방식으로 설명이 안되는 경우가 드러난다면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법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분석방법은 문장전체의 억양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하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문미부분의 억양만을 다루기로 한다.²⁾

이러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말의 언어적 사실들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논하기로 하자.³⁾

첫째, 우리말의 문장유형은 보통 종결어미에 의해 표시되나 소수의 어미,⁴⁾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어'와 '-지'⁵⁾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에 두루 쓰이므로 이들을 가진 다음의 문장 (1)과 (2)에서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형태는 세가지 문장유형 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⁶⁾

(1) | 공부해 |⁷⁾

(2) | 공부하지 |

주 2) 보다 자세한 것은 2.3. 참조할 것.

3) 이 중에는 우리말 특유의 사실만이 아니라 언어보편적 사실도 포함된다.

4) 이에는 '-어', '-지', '-오(우, 유, 소, 수)', '-는데', '-르래' 등이 있다.

5)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를 대상으로 어미별로 사용빈도를 산출해 본 결과임. 3장 참조할 것.

6) 어미 '-어'와 관련된 이 내용은 허웅(1970:22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7) '| |'는 그 안에 있는 문장의 유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표시한다.

둘째, 우리말의 부정사와 의문사의 음성적 실현이 같아서 이를 사용하는 다음의 문장 (3)과 (4)가 네/아니오 의문문인지 의문사 의문문인지 또는 서술문인지의 구분이 형태, 문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⁸⁾

(3) | 누가 왔어 |

(4) | 며칠 밥 썼어 |

셋째, 서술어가 없는 문장에서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하나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⁹⁾

(5) | 즐겁던 일요 |

넷째, 문장의 유형과 그 문장이 수행하는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¹⁰⁾는 서로 호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이나 부가의문문과 같이 이들이 속하는 문장유형과 이들이 수행하는 언표내적 행위 사이에 현저한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문법적 사실과의 관련 하에 설명되지 않는 억양 일부에 대한 설명을 찾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6) 꼭 교제를 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니잖니?

주 8) Chang (1973 : 76)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9) 허 웅 (1970 : 229)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10) 언표내적 행위란 언어사용자가 문장을 발화함에 있어서 수행하는 행위 (doing something in saying something)로서 단언, 발음, 부탁, 약속, 선언 등등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Austin (1962)과 Searle (1969, 1979) 등이 있다.

이 네가지 사실과 그의 몇몇 언어적 사실을 바탕으로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논하게 될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분석대상과 자료, 방법 및 범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3장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억양의 형태별로 분류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억양의 기능을 분석, 기술한다. 4.1.에서 문장유형과 관련하여 억양의 기능을 밝히고 4.2와 4.3에서는 4.1.에서 설명되지 않는 억양을 가진 문장들을 추려내어 재검토함으로써 문장유형과 관련된 기능 외에 어떠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4.2.에서는 이런 문장 중 일부 간접화행문을 다루고 4.3.에서는 그외의 문장을 다룬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일반언어학적 고찰을 시도한다. 즉,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의문문과 으뜸억양과의 관계에 대하여 Liberman (1967)이 제시한 설명의 타당성 검증에서 출발하여, 주로 우리말과 영어를 중심으로 본 연구 나름의 설명을 시도해본다.

2. 분석 대상과 자료, 방법 및 범위

2.1. 대 상

억양의 형태와 기능은 언어간이나 방언간에 공통점이 많다 할지라도 차이점 역시 있기 때문에 억양의 연구는 한 방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억양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중심적인 요소이긴 하나 동시에 다른 요소들, 즉 강세 (stress), 길이 (length), 리듬 (rhythm), 속도 (tempo), 목소리의 음질 등의 요소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요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합되고 이용되어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는 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문제 역시 특정어 내지 방언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현복 1976: 132).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말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억양유형이 나타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 기술한다.

2.2. 자 료

일단 표준말을 사용하는 라디오 방송의 연속극이나 대담을 녹음하여 분석하였으며, 확인작업으로,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말 사용자를 선정하여 질문, 확인하거나 다시 연속극을 녹음하여 분석, 보충시켰다.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번호

- (1) 가. 0001~0022 : 방송극 '취미 며느리' (20 분, 1984 년 1 월,
KBS 라디오 서울)
- 나. 0023~0199 : 방송극 '달려라 셀러리맨' (10 분, 1984 년 1 월,
KBS 라디오 서울)
- 다. 0200~0238 : 대담 '이동 방송차' (10 분, 1984 년 2 월,
KBS 라디오 서울)
- 라. 0239~0273 : 대담 '여성 스튜디오' (40 분, 1984 년 2 월,
KBS 라디오 서울)
- 마. 0274~0639 : 방송극 '여인극장' (20 분, 1984 년 3 월, KBS
제 2)
- 바. 0640~0772 : 방송극 '여인극장' (20 분, 1984 년 4 월, KBS
제 2)
- 사. 0773~0926 : 방송극 '사랑의 계절' (20 분, 1984 년 6 월,
MBC)
- 아. 0927~1138 : 방송극 '사랑의 계절' (20 분, 1984 년 6 월,
MBC)
- 자. 1139~1227 : 이 현복 (1964 : 124~134)

위의 자료에 나타난 역양의 분석은 모두 필자의 청각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수집된 문장들을 모두 본문 중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논의에 직결되는 문장만을 본문 중에 제시하며 제시된 문장 끝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자료번호를 표시한다. 그리고 자료는 논문의 끝부분

에 부록으로 첨부한다.

2.3.0. 양법 및 범위

본고에서는 문전체 억양을 하나의 기능단위로 분석한다. 그런데 문장의 억양은 최종적으로 문미부분, 즉 마지막 말토크¹¹⁾에 나타나는 목소리 높낮이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마지막 말토크만을 분석하되 그 중에서도 강세를 받는 음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높낮이의 변화만을 분석하기로 한다.¹²⁾

문미억양은 내림조와 오름조 중 한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¹³⁾ 본고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한다. 그 세분기준과 표시기호를 '공부례'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세를 받는 음절의 목소리 높낮이에 따라 낮내림조(↘), 높내림조(↘), 낮오름조(↗), 높오름조(↗)¹⁴⁾로 세분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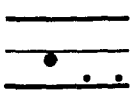
주11) 말토크이란 하나의 강세음절이 준로 또는 앞뒤에 하나나 그 이상의 무강세 음절을 거느리고 나타나는 단위이며 앞뒤에는 임시휴지나 종결휴지가 오는 음성적 단위를 말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 현복(1982) 참조할 것.

12) 억양이 실현될 수 있는 발화의 최소 단위는 음절이다. 왜냐하면 음절은 모음 또는 성대 진동을 수반하는 다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므로 억양 중심 요소인 음고(pitch)를 자유롭게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현복(1976: 13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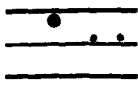
13) 자료에는 내림 억양과 오름 억양 외에 평탄 억양도 나타나 아주 드물게 나타나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4) '↘, ↘, ↗, ↗'는 억양형태를 표시하는 약식 기호로서 강세를 받는 음절 앞에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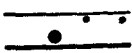
15) 목소리의 높고 낮음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 말하는 높고 낮음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2)ㄱ. 낮내림조 :  16)


\공부해

ㄴ. 높내림조 : 

\공부해


ㄷ. 낮오름조 : 

/공부해


ㄹ. 높오름조 : 

/공부해

둘째, 말토막의 끝음절의 음고가 어느 정도-완전히 또는 보통-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에 따라 세분한다.

(3)ㄱ. 보통내림조 : (2ㄱ)과 (2ㄴ). ㄴ. 온내림조 : 

\공부해

ㄷ. 보통오름조 : (2ㄷ)과 (2ㄹ). ㄹ. 온오름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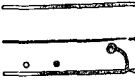
/공부해


셋째, 강세가 후퇴하는가 전진하는가에 따라 세분한다.

(4)ㄱ. 정적 (static) 내림조 : (2ㄱ), (2ㄴ), (3ㄴ).

ㄴ. 정적오름조 : (2ㄷ), (2ㄹ), (3ㄹ).


주 16) Jones (1960)의 표기 방식을 따랐다. 세 줄은 목소리의 음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윗줄은 가장 높은 목소리를, 중간 줄은 중간 높이의 목소리를, 그리고 아래줄은 가장 낮은 목소리를 표시한다. 그리고, 점은 수평조 (level tone)를 나타내고 곡선은 내림조나 오름조를 나타낼 때 쓰이며 커다란 점은 강세가 없힌 음절임을 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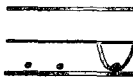
ㄷ. 동적 (kinetic) 내림조 : 
공 부 \ 해


ㄹ. 동적오름조 : 
공 부 / 해


네째, 음고의 방향변화 횟수에 따라 세분한다.

(5) ㄱ. 단일방향 (uni-directional) 내림조 및 오름조 : (4ㄷ) 및 (4ㄹ).

ㄴ. 이중방향 (bi-directional) 내림조 : 
공 부 ^ 해

ㄷ. 이중방향 오름조 : 
공 부 v 해

ㄹ. 삼중방향 (tri-directional) 내림조 : 
공 부 v^ 해

ㅁ. 삼중방향 오름조 : 
공 부 v^ 해

이밖에도 변화속도나 강세 받는 음절 앞에 놓인 음절의 목소리 높

3. 억양의 형태별 분류

억양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우선 자료를 억양의 형태별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분류의 편의를 위하여 각 억양형태 내에서 문장유형별로 분류하고, 다음에 각 문장유형 내에서 어미별로 분류하며, 어미 중에서도 각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의 예를 먼저 제시하고 이어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어미를 가진 문장의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제시되는 예와 관련된 앞뒤 맥락은 본 장에서는 생략하고 억양의 기능을 논할 4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¹⁸⁾

3.1. 내림 억양

3.1.1. 서술문

- (1) 어제 어머님 친 운전기사 만났 \다. (0945 외 18 개)
- (2) 어머님 뵙고 \ 말씀드리겠습니다. (0976 외 106 개)
- (3)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에 관한 한 전적으로 저에게 일임하고 A 제시거든요.¹⁹⁾ (0467 외 0 개)

주18) 소형문의 경우는 앞뒤 맥락을 제시하지 않고 소형문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은 별 의의가 없으므로 본 장에서는 소형문을 제외하기로 하고 대신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9) 이를 Jones (1960)의 표기방식에 따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A 제시거든요

- (4) 야, \신나네. (0128 외 2개)
- (5) 그 ^큰일이구나. (0363 외 32개)²⁰⁾
- (6) ~당신 애길 추궁당하면서 뛰고 있는 중이라니 \까. (0099 외 1개)
- (7) \먹을만 하더라. (0454 외 4개)
- (8) 아아, 내가 차를 ^보낼께. (0175 외 4개)
- (9) 서 ^동주올시다. (0691 외 0개)
- (10) 일이 묘하게 ^되버린걸 뭐. (1215 외 0개)
- (11) 이따 어차피 \만날걸요 뭐. (1187 외 0개)
- (12) 누나하고 마당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0283 외 187개)²¹⁾
- (13) 반대하고 다르\지. (0607 외 38개)
- (14) 나 정말 그런 거 안해 갈래 ^요. (0627 외 0개)
- (15) \나요. (0389 외 0개)²²⁾

주 20) 어미 '-군'과 '-구먼', 그리고 '-구려'는 어미 '-구나'와 함께 처리하였다.

21) 형태, 통사적으로 문장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문장의 경우에는 앞뒤 맥락에 의거하여 유형을 판별하였다. 예를 들면 서술문 (12)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여: 아니 누가 왔\니?

남: 지난 번에 누나를 찾아왔던 그 \남자예요.

여: 아니, 왔으면 들어오지 않\구?

남: 누나하고 마당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0280~0283)

22) 어미 '-우', '-유', '-소', '-수'는 어미 '-오'와 함께 처리하였다.

3. 1. 2 의문문

3. 1. 2. 1. 네/아니오 의문문

- (16) 보면 알 거 \아니니? (1221 의 9 개)
- (17) 신희여행 다녀올 시간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0600 의 2 개)
- (18) ~부모님을 섬섬하게 하는 결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²³⁾
(0347 의 5 개)
- (19) 그런 건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야유? (0486 의 0 개)
- (20) ~이렇게 와서 구구한 얘기할 거 \없잖아요? (0340 의 14 개)
- (21) 별 일 없\지? (0527 의 12 개)

3. 1. 2. 2 의문사 의문문

- (22) 누가 왔\니? (0280 의 10 개)
- (23) 기훈씨하고 어떻게 된 \사이냐구요? (1123 의 1 개)
- (24) 어이구, 저 불같은 성미 언제나 \죽을까? (0291 의 2 개)
- (25) 어, 현대, \웬 일이십니까? (0163 의 8 개)
- (26) ~차기사하고의 결혼문제는 어떻게 할 \작정이나? (0372 의 3 개)

주 23) '-비니까'를 가진 문장 중에는 평탄 억양을 사용한 예도 있긴 하나 그 예가 '안-녕하십니까?' (자료 0693) 라는 인삿말로써 정상적인 의문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7) 누가 이런 사람을 사무실에 들여놓으라고 \했나? (0574 외 1개)

(28) 어\떠신가요? (0794 외 1개)

(29)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지\금? (0929 외 66개)

(30) 아, 만나보기만 하는 거야 어떻\수? (0287 외 1개)

3. 1. 2. 3. 선택 의문문

(31) ~시골에 내려가 있어야 하는 거/유, 아니면 서울에다 방
을 얻어서 따로 살아야 \하는 거유? (0482)

(32) 모두들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안하겠다는 거\야? (0537)

(33) 너 -빵 먹을래, \밥 먹을래? 24)

3. 1. 3. 명령문 25)

(34) 아, 저리 \비켜라. (0509 외 2개)

(35) 네, \말씀하십시오. (0655 외 7개)

(36) 한 잔 들고 어서 \주문하게. (0410 외 1개)

(37) 그 청년 용서해 주\자. (0840 외 4개)

(38) 이왕 집에까지 왔다니 한 번 만나보거나 합시\다. (0286
외 0개)

(39) 그런 다음 이 방안에 들어차도록 책을 \꽂아보라구.
(0659 외 4개)

(40)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자\구. (0126 외 2개)

주24) 필자의 평상시의 관찰에 의한 것이다.

25) 청유문도 명령문에 포함시켰다.

(41) 일어 \나. (0030 외 78 개)

(42) \따라 오시죠. (0400 외 8 개)

3.2. 으뜸 억양

3.2.1. 서술문

(43) ~하지만 남들처럼 몇백만원씩 하는 자개장은 못사준 /다.

(0625 외 0 개)

(44) 부모님 돌아가신 지 거의 십년이 가까와 오 /거든요.

(0243 외 3 개)

(45) 정말 웃기 /네. (0141 외 1 개)

(46) 어휴, /늦는구나. (1126 외 4 개)

(47) 아이, 당치 않은 거짓말이라니까 /요. (0738 외 0 개)

(48) 명주애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회피하려고만 들더 /라.(0897

외 0 개)

(49) v 곧 갈게. (1175 외 0 개)

(50) 그러면서 기혼셀 만나보고 /싶다나요. (1114 외 0 개)

(51) 지금 다 저만치 다 뛰어갔 /어. (0049 외 6 개)

3.2.2. 의문문

3.2.2.1. 네 /아니오 의문문

(52) 너 정말 시부모님 모실 자신 있 /니? (0474 외 8 개)

(53) 방학 숙제 다 /했습니까? (0219 외 3 개)

(54) 혹시 학생이 /신가요? (0804 외 4 개)

- (55) 아, 그 / 떨까? (0119 외 6 개)
- (56) 이불은 아까 백화점에서 본 걸루 되겠 / 든? (0594 외 0 개)
- (57) 철근은 / 다 들어왔나? (0545 외 6 개)
- (58) 시 / 장하세요? (1093 외 47 개)
- (59) 엄마, 이 백화점. / 처음이유? (0439 외 1 개)
- (60) 고수만씨 / 맥이죠? (0147 외 4 개)
- (61) 아, 그럼, 옷은 고리쪽에 넣어놓고 살 / 래? (0621 외 0 개)

3. 2. 2. 2 의문사 의문문

- (62) 아니, √ 누굴까요? (0143 외 1 개)
- (63) 어디서 오셨습니 / 까? (0515 외 1 개)
- (64) 그거 어디서 난 거 / 냐? (0277 외 0 개)
- (65) 어린 손님은 뭘 드시게 한 / 다? (0418 외 0 개)
- (66) 그랬다가 부모님이 우리 인육일 싫다고 하면 어쩌겠 / 수?
(0466 외 1 개)
- (67)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니, 무슨 / 애기예요? (0718 외 26 개)
- (68) 맥은 / 누구시죠? (0972 외 24 개)

3. 2. 3. 명령문

- (69) ~수준 높은 책들만 좀 팔라보라 / 구. (0662 외 0 개)
- (70) 어차피 수표는 끊은 거니까 그걸 유용하게 이용하자 √ 구.
(0656 외 0 개)
- (71) 기 / 다리세요. (0164 외 2 개)

4. 억양의 기능

본 장에서는 수집한 자료-주로 3장의 억양의 형태별 분류 결과-를 근거로 억양의 기능을 분석,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말 문미억양이 통사적 기능,²⁶⁾ 즉 문장유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문장유형별 억양형태를 밝혀본다.²⁷⁾ 그리고 이러한 통사구조와의 관계로 설명될 수 없는 억양의 선택은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4.1. 통사적 기능

영어의 문장은 형태 및 통사상의 차이로 이미 문장유형이 구분되므로 영어의 억양은 문장유형 구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이차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형태, 통사상의 차이로 문장의 유형구분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만일 우리말 억양이 문장유형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기능은 잉여적인 것과 변별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주 26) '통사적'이란 용어는 Ladd(1980:137)가 억양의 역할에 대한 접근방식을 소개하는 데 사용한 것과 의미가 같다. 그리고 Abe(1955:341)는 통사적 구조와 관련이 있는 억양을 '통사적 억양'(syntactical intonation)이라 부르고 있다.

27) 이전의 한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의 형태를 기술하고 있다.

4.1.1 잉여적 기능

우리말의 문장유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으로 각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나 통사적 구성에 의해 표시된다.²⁸⁾ 따라서 이런 문장에 사용되는 억양은, 만일 문장의 유형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이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장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유형의 문장이건간에 내림 억양과 오름 억양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서, 억양이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본고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문장유형별로 각 형태의 억양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서술문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 총 194 개 중, 내림 억양을 사용하는 예가 178 개이고 오름 억양을 사용하는 예가 16 개로서 내림 억양의 사용빈도(91.8%)가 오름 억양에 비해 훨씬 높다. 그리고 네/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의문문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 52 개 중, 33 개에 오름 억양이 사용되고 19 개에 내림 억양이 사용되어 오름 억양의 사용빈도(63.5%)가 내림 억양보다 높으며, 명령문에서는 명령문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 29 개 중, 27 개에 내림 억양이 사용되고 2 개에 오름 억양이 사용되어, 내림 억양의 사용빈도(93.1%)가 오름 억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단은 각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이 존재하며 그 형태는 서술문과 명령문에서는 내림조이고 네/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오름조라고 볼 수 있겠다.²⁹⁾ 이는 억양의 통사적 변별기능을 다룬 4.1.2.에서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주 28) 여기서는 어미 이외의 통사적 구성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9) 의문사 의문문과 선택 의문문은 4.1.2.에서 다룬다.

4. 1. 2. 변별적 기능

4. 1. 1.에서는 각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에 사용되는 억양의 형태별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문장유형 특유의 억양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형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어, 여기서는 어미에 의해 문장유형을 알 수 없는 문장의 억양 형태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4. 1. 1.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본다.

우리말에서 억양이 변별력을 발휘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를 자료에 근거하여 찾아보면 첫째,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 '-어'와 '-지' 등을 가진 문장과,³⁰⁾ 둘째, 의문사 또는 부정사를 가진 문장, 그리고 셋째, 서술어가 없는 문장에서의 문장유형 구분과, 마지막으로 선택의문문과 네/아니오 의문문 간의 구분에서이다.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4. 1. 2. 1.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어'와 '-지'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에 두루 쓰이기 때문에 이 어미를 가진 문장은 통사적으로 유형구분이 안된다. 이러한 문장의 유형구분은 과연 무엇에 의존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4. 1. 2. 1. 1. '-어'를 가진 문장

다음의 예를 검토하여 보자.

(1) ㄱ. 여: 기훈 / 씨.

주 30)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로는, '-어'와 '-지', 그리고 '-그래', '-그때', '-그때', '오(우, 유, 소, 수) 등이 있으나 '-어'와 '-지' 외에는 사용빈도가 높지 않아서, '-어'와 '-지' 외에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

ㄴ. 남 : / 쨌 일이지 ?

ㄷ. 여 : | 지난 번에 서로 기분 상한 채로 헤어져서 마음에
 \ 절렸어요 |

ㄹ. | \ 타세요 |

ㅁ. 남 : | 집에 가서 할 일이 \ 많아 |

ㅂ. 여 : | 잠간이면 돼 \ 요 |

ㅅ. | \ 타세요 |

ㅇ. | 난 생각나는대로 말을 해야 \ 편한 사람이예요 |

ㅈ. | 그 대신 뒷끝이 전혀 \ 없어요 |

ㅊ. 여 : | 시 / 장하세요 |⁵

ㅊ. 남 : | 어, 집에 가서 \ 먹겠어 |

(1083 ~ 1094)

(1ㄷ) ~ (1ㅊ)은 종결어미로 '-어'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여러 문장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ㄷ)과, (1ㅁ), (1ㅇ), (1ㅈ), (1ㅊ), 그리고 (1ㅊ)은 서술문과 의문문으로 해석되며³¹⁾ (1ㄹ)과 (1ㅅ)은 서술문,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맥락에 의하면 (1ㄷ)과 (1ㅁ), (1ㅂ), (1ㅇ), (1ㅈ), 그리고 (1ㅊ)은 서술문이고, (1ㅊ)은 네/아니오 의문문이며 (1ㄹ)과 (1ㅅ)은 명령문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서술문과 명령문에는 내림조가 사용되고 네/아니오 의문문에는 오름조가 사용되고 있다.

주31) 이들이 명령문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는 주어가 2인칭이 아니거나 (1ㅇ), 서술어가 비상태 동사가 아니거나 (1ㅁ, 1ㅈ, 1ㅊ), 또는 보조어간이 들어있기 (1ㄷ, 1ㅊ) 때문이다.

종결어미 '-어'를 가진 문장으로서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문장들도 이와 같이 맥락에 의해 문장유형을 판별하고, 문장유형별로 문장 수와 그들에 사용되는 내림조와 오름조 역양의 비율을 산출하여 보았다. 그 결과, 문장유형별 문장 수는 서술문이 195개, 네/아니오 의문문이 63개, 그리고 명령문이 82개로 나타났고 내림조와 오름조의 비율은 서술문에서 188:7(96.4% : 3.6%), 네/아니오 의문문에서 15:48(23.8% : 76.2%), 그리고 명령문에서 79:3(96.3% : 3.7%)으로 나타났다. 즉, 예외도 나타나진 하나 기본적으로 각 문장유형에는 한가지 '역양형태'가 대응되고 그 형태는, 서술문과 명령문에는 내림조가, 네/아니오 의문문에는 오름조가 대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4.1.1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각 음조의 사용빈도가 서로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2.1.2. '-지'를 가진 문장

다음의 예를 검토하여 보자.

(2) 가. 여₁: 아버지 널 내놓기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란다.

나. 여₂: 그게 반대지 뭐\유?

다. 여₁: |반대하고 다르\지|

라. 아, 반대하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
\니? (0605 ~ 0608)

(3) 가. 남₁: 아, 마침 소장님이 \돌아오시는군요.

나. 남₂: |별 일 없\지|

다. 남₁: \네.

(0526 ~ 0528)

(4) ㄱ. 남 : 아, 이것 /봐!

ㄴ. |여기 차 좀 \주지|

ㄷ. 여 : \네.

(0743 ~ 0745)

(2ㄷ)과 (3ㄴ), 그리고 (4ㄴ)은 모두 종결어미로 ‘-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어’를 가진 문장과 마찬가지로 여러 문장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앞위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2ㄷ)이 서술문이고 (3ㄴ)은 네/아니오 의문문이며 (4ㄴ)은 명령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이한 현상은 ‘-지’를 가진 문장 중, 서술문과 명령문에 사용된 억양형태는 4. 1. 1.과 4. 1. 2. 1. 1.에서 살펴본 바와 일치하나 네/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4. 1. 1.과 4. 1. 2. 1. 1.에서 살펴본 네/아니오 의문문 특유의 억양은 으뜸조이나 (‘너 정말 시부모님 모실 자신 있/니?’ (0474)),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에는 내림조가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예 (3ㄴ) 외에 자료에 나타난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의 억양형태를 검토해보면 으뜸조가 없이는 경우도 나타나긴 하나 숫적으로 내림조에 비해 열세이다(내림조 : 으뜸조 = 13:5(72.2% : 27.8%)). 바꿔 말하면,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 대부분이 ‘-지’ 이외의 어미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과 억양면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다.³²⁾

주 32) 이들은 통사적으로도 대립을 보인다. 어미 ‘-지’가 선택 의문문에 안 쓰인다던지,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에 안 쓰인다는 등 여러 대립을 보이고 있다.

4. 1. 2. 2. 부정사나 의문사를 가진 문장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얼마’, ‘어떤’, ‘몇’ 등은 부정사와 의문사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용하는 문장의 유형구분이 형태, 통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표준말에서 강세(stress)나 목소리의 높낮이(pitch)가 의문사와 부정사 간의 구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쓰인 문장의 유형구분은 억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이들 문장에서의 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4. 1. 2. 1. 2.에서 ‘-지’ 이외의 어미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과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이 억양면에서 대립을 보이는 현상으로 미루어, 의문사 의문문에서도 이와 같은 대립을 보이리라 예상되므로 ‘-지’를 가진 문장과 그밖의 어미를 가진 문장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4. 1. 2. 2. 1. ‘-지’ 이외의 종결어미를 가진 문장

(5) ㄱ. 여: 누가 왔\니?

ㄴ. 남: 지난 번에 누나를 찾아왔던 그 \남자예요.

(0280 ~ 0281)

(6) ㄱ. 남₁: ~아는 사람 누가 \있나?

ㄴ. 남₂: 아-아 \됩니다.

(0403 ~ 0404)

(5)과 (6)은 의문사 또는 부정사를 가지는 문장의 예로서 이들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네/아니오 의문문이나 의문사 의문문 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맥락에 의하면

(57)은 의문사 의문문이고 (67)은 네/아니오 의문문임이 드러나는데 의문사 의문문 (57)에는 내림조가 없히고³³⁾ 네/아니오 의문문 (67)에는 오름조가 없히고 있다.

또 Chang(1973:76)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억양에 의해 문장유형을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7) | 누가 메리를 만났어 |

예 (7)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서술문 (Somebody met Mary.)과 네/아니오 의문문 (Did somebody meet Mary?),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Who met Mary?) 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필자는 이 문장을 이용하여 대화 (8)을 만들어, 표준말 사용자들에게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 다음 읽혀본 결과, 서술문 (8ㄷ)과 의문사 의문문 (8ㄷ)에는 내림조를 사용하고³⁴⁾ 네/아니오 의문문 (8ㄴ)에는 오름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 33) 1. 자료에 나타난 의문사 의문문에 사용되는 내림억양의 사용빈도는 '-어'를 가진 문장 94개 중 67개에 내림조가 사용되어 71.3%이고 그 외의 어미(단, '-지'는 제외)를 가진 문장 43개 중 35개에 내림조가 사용되어 81.4%로 나타났다.
 2. 의문사 의문문 특유의 억양이 내림조라는 데서 다음과 같이 부사절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 내림조로 끝나는 데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① 아이,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서 사람 잠을 깨우는 거냐구? (0002)
 ② 오빠! 밤엔 도대체 뭐하고, 여태까지 자고 있는 거야? (0004~0005)
 3. Gim(1971:72)은 의문사 의문문의 억양을 오름억양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관찰결과와 다르다.
 34) Chang(1973)은 의문사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문장의 억양을 오름억양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관찰결과와 다르다.

- (8) ㄱ. <갑> : 메리가 곧 미국으로 돌아간 \대.
 ㄴ. <을> : /누가 메리를 만났어?
 ㄷ. <갑> : 응, \누가 메리를 만났어.
 ㄹ. <을> : \누가 메리를 만났어? ³⁵⁾
 ㅁ. <갑> : 미영이가 만났 \대.

위에서 의문사 의문문에 사용되는 역양의 형태까지 살펴봄으로써 각 문장유형에 따른 역양형태가 모두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종합하자면, 서술문과 명령문,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에는 내림조가 사용되고 네/아니오 의문문에만 오름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4. 1. 2.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에는 '-지' 이외의 다른 어미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에서의와 반대형의 역양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가 문제로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지'를 가진 의문사 의문문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역양이 사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4. 1. 2. 2. 2. 종결어미 '-지'를 가진 문장

- (9) ㄱ. 여 : 아, 요즘 베스트 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도 ^ㄷ놓지 말고 말 \야.
 ㄴ. 남 : 베스트... 뭐라고 하/셨죠?
 ㄷ. 여 : 베스트 셀 \러. (0663 ~ 0665)

주 35) 예)(8ㄴ)~(8ㄹ)의 강세는 편의를 위해 모두 첫음절에 얹힌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그 위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 (10) ㄱ. 여 : 전에 저 언덕에선가, 고 수단씨, 어떤 여자를 만났\죠?
 ㄴ. 남 : 그래, 그래\요. (0065 ~ 0066)

(9ㄴ)과 (10ㄱ)은 의문사나 부정사가 종결어미 '-지'와 함께 쓰인 예로서 이들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은 네/아니오 의문문이나 의문사 의문문 중, 어느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맥락으로 보아 (9ㄴ)은 의문사 의문문이고 (10ㄱ)은 네/아니오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지'를 가진 의문사 의문문 (9ㄴ)에 으뜸조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이를, 대부분의 '-지'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에 내림조가 없이는 현상과 관련지어 보면, '-지'를 가진 의문문은 '-지' 이외의 어미를 가진 의문문과 억양면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³⁷⁾ 결국, '-지'를 가진 의문문은 네/아니오 의문문이건 의문사 의문문이건간에 '-지' 이외의 어미를 가진 의문문에서와 반대형의 억양을 사용하므로³⁸⁾ '-지'를 가진 의문문에서의 억양은 의문문 특유의 억양형태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다.

의문사 또는 부정사와 '-지'가 함께 쓰인 의문문과 더불어 서술문에 사용되는 억양의 형태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 (11)을 만들어 표준말 사용자에게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게 한

주 36) 예 (9ㄴ) 외에 '-지'를 가진 의문사 의문문으로서 자료에 나타난 22개 문장도 모두 으뜸조로 끝나고 있다.

37) 여기서 선택 의문문은 제외된다. (선택 의문문에는 종결어미 '-지'가 나타나지 않음.)

38) '-지' 이외에 '-다'를 종결어미로 가진 의문사 의문문에도 언제나 으뜸조만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했으나, '-다'는 본래 서술문의 대표적인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문은 아주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예) 어린 손님은 뭘 드시게 한/다? (자료 0418)

다음 읽혀본 결과, 서술문 (11ㄷ)과 네/아니오 의문문 (11ㄴ)에는 내림조를 사용하고 의문사 의문문 (11ㄹ)에는 오름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ㄱ. <갑> : 영화 지금쯤 연구 발표하고 있겠다.

ㄴ. <을> : 누가 [누구] 거기 갔\지?

ㄷ. <갑> : 그럼, 누가 갔\지.

ㄹ. <을> : 누가 /갔지?

ㅁ. <갑> : 미영이가 갔\어.

4. 1. 2. 3 소형문 (minor sentence) 및 첨가문

4. 1. 2. 3. 1. 소형문 (minor sentence)

소형문 (minor sentence)이란 완전문 (full sentence)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Bloomfield(1933:171~176)는 적절한 문장형태 (favorite sentence form)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형태를 갖추면 완전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형문이 된다고 했다. 이 기준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에 대한 우리말의 기준은 서술어가 있는가 없는가로 설정한다.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예들 검토하여 봄으로써 소형문에는 과연 어떤 형태의 억양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³⁹⁾

(12) ㄱ. 남 : 그 친구 /일어났어요?

ㄴ. 여 : 아, \네.

(0151 ~ 0152)

주 39) 호칭이나 감탄사가 소형문의 아주 대표적 예이긴 하나, 억양과 매우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관찰되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13) ㄱ. 여 : 어떻게 /풀러났죠?
 ㄴ. 남 : 기상외 A의외였습니다.
 ㄷ.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애써 주시고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1022 ~ 1024)
- (14) ㄱ. 남 : 아이, 누구, 누구 \야?
 ㄴ. 여 : 여보, 부장 A님. (0154 ~ 0155)
- (15) ㄱ. 여 : 그럼, 부모님한테 우리 인옥이 얘기는 했 /수?
 ㄴ. 남 : 네, 아 \직. (0463 ~ 0464)
- (16) ㄱ. 남 : 제 행위에 대한 책임은 A제가 지겠습니다.
 ㄴ. 여 : 책임을 /저요?
 ㄷ. \어떻게요? (1033 ~ 1035)
- (17) ㄱ. 여₁ : 그래서 /가만 있었어?
 ㄴ : 여₂ : 가만 있지 \않으면?
 ㄷ. 여₁ : 따귀라도 때려주^A지. (0835 ~ 0837)
- (18) ㄱ. 남 :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젊은 사람의 앞날을 생각해서 탄원서를 한 장...
 ㄴ. 여 : \탄원서라니요?
 ㄷ. 남 : 정상을 이해하시고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이 \죠. (0827 ~ 0829)
- (19) ㄱ. 남₁ : ~귀찮드래도 나가서 A전화 한번 해봐요.
 ㄴ. 남₂ : 귀찮아서 그A런 게 아닙니다.
 ㄷ. 남₁ : 어허, 거 \어서. (0434 ~ 0436)
- (20) ㄱ. 남₁ : 윤주의 저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건 \언제부터

였습니까?

ㄴ. 남₂: 보름 전이⁵었어요.

ㄷ. 남₁: /겨우?

(1152 ~ 1156)

예 (12)~(20)을 보면 여러 형태의 소행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내림조가 없이는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말음에 대한 긍정 대답문인 (12ㄴ)의 '아, 네'와⁴⁰⁾ 연결어미로 끝난 (13ㄷ)의 '~써주셨기 때문에', 명사만으로 문장을 이룬 (14ㄴ)의 '~부장님', 그리고 부사만으로 문장을 이룬 (15ㄴ)의 '아직'은 비록 서술어가 없는 소행문이지만 맥락으로 보아 서술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의문사만 있는 (16ㄷ)의 '어떻게요'나 서술어는 물론이고 의문사도 없는 (17ㄴ)의 '가만 있지 않으면'과 (18ㄴ)의 '탄원서라니요'는 의문사 의문문으로 해석되며 (19ㄷ)의 '~어서'는 부사만 있으나 명령문으로 해석된다. 이어 으뜸조가 없힌 (20ㄷ)의 '겨우'는 부사만으로 문장을 형성하지만 네/아니오 의문문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명령문으로 해석되는 문장에는 내림조가 사용되나 네/아니오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문장에는 으뜸조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서술어가 없는 소행문이라 할지라도 완전문에서와 같이 해당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형태를

주 40) 대답문 중 긍정 대답문이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부정 대답문 중 '아뇨'와 '아니'가 그 외 대답문들과 억양형태에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즉 '아뇨'와 '아니'에는 으뜸조가 사용되고 (자료 0697 '/아뇨'와 1118 '/아니'), 그 외 대답문에는 내림조가 사용되고 있다. (자료 0301 '그래'와 0932 '아니예\요' 등)

그대로 지닌 채 발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⁴¹⁾

4. 1. 2. 3. 2. 첨가문

이 논문에서 첨가문이란, 거의 휴지 (pause) 없이 문장의 한 구성소를 서술어 뒤로 후치 또는 중첩시키거나, 아니면 서술어 뒤에 호칭을 첨가시키는 문장을 뜻한다. 첨가문에 해당되는 다음의 예에 얹힌 억양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 (21) 아니에\요, \아무 것두. (0930)
- (22) 냉면 맛있었\조, \엄마? (0452)
- (23) 어떡하\조, 엄 /마? (0302)
- (24) 점심 대접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0449)
- (25) 매형이 갖고 온 거예\요, \매형이요. (0278)
- (26) 양주 같은데 뜰어 \불까요, /아버지? (0276)
- (27) 우리가 따라오도록 여기까지밖에 \못왔어요, 그 /새? (0044)
- (28) 어, 나, 저, 인삼차 같은 것도 있\수, /아가씨? (0443)
- (29) 뭘로 /드시겠습니까, \장모님? (0442)

예 (21)~(23)을 보면, 자신의 문장유형 특유의 억양이 일단 서술어에 얹히고 나서 뒤따르는 구성소에 다시 한 번 얹히고 있으나 예 (24)~(29)는 서술어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문장유형 특유의 억양과

주 41) 1. 해당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형과 반대되는 억양을 사용하는 예도 나타났으나, 드물게 나타났다.

의문사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아래의 밑줄친 문장이 그 예이다.

예) 남: 내가 쉬고 있는데 그녀가 내게 \다가 왔어요.

여: 어, 그\래서요? (0072~0073)

2. 소형문으로 반복질문하는 예는 4. 3.에서 다루기로 한다.

반대형의 억양이 없히고 나서 뒤따르는 구성소에 자신의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이 없히고 있다. 즉, 서술문 (24)와 (25)의 서술어인 '죄송합니다'와 '갖고 온 거예요'에는 으뜸조가 없히고 있으나 네/아니오 의문문(26),(27),그리고 (28)의 서술어인 '뜬어 볼까요'와 '못 왔어요', 그리고 '있수'에는 내림조가 없히고 있다.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29)의 서술어인 '드시겠습니까'에는 으뜸조가 없히고 있다. 그러나 서술어에 뒤따르는 구성소—(24)의 '장모님', (25)의 '매형이요', (26)의 '아버지', (27)의 '그새', (28)의 '아가씨', (29)의 '장모님'—에는 각각의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이 없히고 있다.⁴²⁾

이제까지 서술어가 없는 소행문이나 서술어로 끝맺지 않은 (21)~(29) 같은 문장의 억양형태를 살펴본 바, 한 문장의 억양은 그 형태가 서술어 부분의 억양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문장 끝부분—끝부분의 문장 성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의 억양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1. 2. 4. 선택 의문문과 네/아니오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네/아니오 의문문 형태의 문장이 두개 이상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중의 하나를 답으로 전제한다. 3. 1. 2. 3. 에 제시된 선택 의문문 (31)~(33)을 보면 끝맺음이 아닌 끝맺음에는

주 42) 해당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형과 반대되는 억양을 가진 예도 나타났으나 드물게 나타났다. 아래의 밑줄 친 문장이그 예이다.

예) 남: 아이, 그게 무슨 것이야, '그게 ?

여: 이걸요, 급히 잡수지 말라구A요. (0189~0190)

오름억양 (31), 내림억양 (32), 그리고 명탄억양 (33)이 없히고 있으나 끝말음에는 내림억양만이 없히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들 선택 의문문을 이루고 있는 네/아니오 의문문 형태의 문장들이 각각 별개의 네/아니오 의문문이라면, 이들 문장 간에 거의 휴지 (pause) 없이 발화한다 하더라도 선택 의문문에서와는 달리, 앞문장뿐만이 아니라 뒷문장에도 오름억양이 없힐 것이다 (4. 1. 1.과 4. 1. 2. 1. 참조). 따라서, 둘 이상의 연속적으로 발화되는 네/아니오 의문문 형태의 문장들이 하나의 선택 의문문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네/아니오 의문문인지, 마지막 문장에 없히는 억양형태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다음의 예 (30)은 선택 의문문이고 (31)은 두 개의 네/아니오 의문문이다.

(30) |,놀러 갈까 \잠 잘까|

(31) |,놀러 갈까 /잠 잘까|

이상에서 우리는, 억양과 문장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억양이 통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첫째, 내림 억양은 서술문, 명령문, 의문사 의문문을 표시하고 오름 억양은 네/아니오 의문문을 표시하며, 둘째,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를 가진 문장에서는 그 역할이 잉여적일 뿐이나, 형태 및 통사적으로 문장유형을 알 수 없는 문장-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어미 '-어'나 '-지' 등을 가진 문장과 부정사나 의문사를 가진 문장, 서술어가 없는 소형문, 완전문이지만 서술어가 아닌 다른 구성소로 끝나는 문장,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화되는 둘 이상의 네/아니오 의문문 형태의 문장-에서는 그 역할이 변별적이

며, 세째, 특이한 현상으로서 '-지'를 가진 대부분의 의문문에서는 '-지' 이외의 어미를 가진 의문문에서와 반대형의 억양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 이어 이제까지 숫적으로 열세라는 이유로 예외로 처리했던 문장들-각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과 반대형의 억양이 없이는 문장들-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4.2. 언표내적 행위 수행 기능

4. 1.에서 예외로 남는 문장 중에서 3. 1. 2. 1.에 제시된 내림 억양이 없던 네/아니오 의문문을 살펴본다면 이들 대부분이 정보를 추구하는 순수한 물음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이제, 이러한 의문문(네/아니오 의문문뿐만 아니라 의문사 의문문도 포함)의 예를 검토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억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논하여 보기로 하겠다.

4. 2. 1.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

모든 의문문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적 해석을 받을 수 있는데⁴⁴⁾ 의문문은 보통 듣는 이에게서 정보를 요구하나, 이러한 의

주 43) 김 승곤(1983:262-263)에서도 수사적인 해석을 받는 의문문이나 부가의문문에 내림 억양을 사용한다는 언급이 있다.

44) Chang(1973:116,128)은 의문문이 '꼭', '반드시'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 낱말(modality-bearing word)을 포함하거나 '벌써', '다직'과 같은 극성에 민감한 낱말(polarity-sensitive word)을 포함하거나 또는 종결어미 '-지'를 가진 경우에는 수사적 해석을 받지 못한다는 제약을 들고 있다.

문문은 문장의 반대극을 단언한다. 즉, 부정 의문문의 형태로 긍정의 단언을 하고 긍정 의문문의 형태로 부정의 단언을 한다 (Chang, 1973: 115).

이런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32) ㄱ. 그런 건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니ㄹ유?

ㄴ. 부모님만 시골에 계신데 내가 똬 뻘에 서울에서 따로 방
을 얻어 갖고 있\수? (0485 ~ 0486)

(33) 내 마음에 들면 무슨 소용이 있\니? (아버지 마음에 드셔야
하는 거\지.) (0354 ~ 0355)

(34) 그 원고지 열다섯 장 쓰는 걸 갖고 하루 종일 씨름을 했
지 \뉘냐? (0370)

(35) 그 따위 양주병이나 들고 오며는 저 녀석을 내가 만날 줄
알\구? (0285)

예 (32)~(35)는 자료에서의 맥락에 의하면 모두 수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이다. 즉, (32 ㄱ)은 ‘~이 뻔하다’, (32 ㄴ)은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3)은 ‘아무 소용이 없다’, (34)는 ‘다른 게 아니라 씨름을 했다’, (35)는 ‘~절대로 만나주지 않겠다’⁴⁵⁾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들은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행위를

주 45) 전남 방언의 메인 이름씨를 다루는 이 기잡(1983: 주9)에서도 전남 방언의 “바둑 둘 줄 아냐?”라는 의문문이 물음에 사용할 때의 억양형태를 바꿈으로써 ‘나는 결코 바둑을 두지 않겠다’라는 뜻을 표명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는 억양이 갖는 방언간의 보편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반대극을 단언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나머지 문장 중, 네/아니오 의문문에서 간혹 으뜸조가 나타나긴 하나 숫적으로 열세이며 그 외 문장에서는 거의 내림조로 끝나고 있다. 따라서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문문인지 아니면 반대극을 단언하는 의문문인지가 억양에 의해 구분이 어려우나, 대부분의 네/아니오 의문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의문문에는 으뜸조가,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에는 내림조가 사용되므로 억양에 의해 구분이 가능해진다.⁴⁶⁾

그러면 이제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의 억양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 (32)~(35)의 문장유형을 살펴보면 (32ㄱ)은 네/아니오 의문문이고 (32ㄴ)과 (33), 그리고 (34)는 의문사 의문문이며 (35)는 연결어미로 끝난 소형문인데 이들에 사용되는 억양은 내림조 한 가지이므로 일단 이들 억양은 문장유형과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문장은 모두가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 억양과 언표내적 행위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어 네/아니오 의문문의 형태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부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억양을 마저 검토함으로써 과연 이런 추측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주 46) I. H. Lee (1980:238)에서도 억양에 의해 구분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4. 2. 2. 부가 의문문

우선 우리말의 부가의문문의 형태를 알아보고 이어 이들에 사용되는 억양형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 (36) 동사/형용사
 ... { } (시제) 지 않 *(시제) 의문종결어미⁴⁷⁾
 명사구-지정사
- |----- Tag -----| |----- Pack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 형태소에 관한 것인데 Pack에는 시제 형태소가 첨가될 수 있으나 Tag에는 첨가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시제 형태소나 미래시제 형태소가 첨가되면 단순한 부정 의문문인지 아니면 부가 의문문인지가 형태에 의해 구분이 되나, 시제 형태소가 첨가되지 않으면 두 문장의 형태가 같아지므로 구분이 어려워진다.⁴⁸⁾

이제 부가 의문문 중에서 특히 시제 형태소가 첨가되지 않은 예를 검토함으로써 억양이 단순한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간의 구분에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37) ㄱ. 남 : 인옥씨하고 저하고는 이미 완전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여 : 그런 거라면 이렇게 와서 그런 구구한 얘기할 거

주 47) 장 석진 (1983) 참조.

48) 부정 의문문의 형태 중 (36)과 유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 } * (시제) 지 않 (시제) 의문종결어미 [장 석진(1983) 참조]
 명사구-지정사

ㄹ 없잖아요?

(0339 ~ 0340)

(38) ㄱ. 여: 마음에 들구 안들구 언제 교체할 기회나 ㄹ 있었어요?

ㄴ. 남: 교체는 무ㄹ슨...

ㄷ. 꼭 교체를 해야만 결혼하는 건 ㄹ 아니잖니?

ㄹ. 여: 그렇다고 이제까지 있다가 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처신할 일도 아니잖아ㄹ요?

(0382 ~ 0385)

예 (37ㄴ)과 (38ㄷ), 그리고 (38ㄹ)은 모두 '~지 않아[니]'를 가진 네/아니오 의문문의 형태이나 (37ㄴ)은 '~없었다', (38ㄷ)과 (38ㄹ)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언표 내적 행위는 정보를 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앞의 의미내용('~지')을 단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들에 사용된 억양은 4.1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으뜸조이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내림조이다. 자료상의 부가 의문문 중, 여기에 제시하지 않은 예 중에는 간혹 으뜸 억양을 사용하는 예가 나타나긴 하나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않+의문종결어미' 형태의 의문문이 부가 의문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정 의문문인지의 구분에는 주로 억양이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가 의문문에 사용되는 내림억양은 과연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4.2.1.의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에서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들 의문문이 갖고 있는 특성 중,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

보면 첫째, 의문문의 형태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간접 화행문이라는 점과 둘째, 내림억양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공통점을, 단언은 보통, 서술문으로 하며 서술문 특유의 억양은 내림조라는 사실과 연관지어서 이들 의문문에 사용된 내림억양에 대해 재고한다면, 이들 억양은 자신의 문장유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행하는 언표내적 행위에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림억양에 의해 의문문이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억양의 이런 역할을 '언표내적 행위 수행 기능'이라고 이름붙여 보았다. 이 외에도 이런 역할을 갖는 억양의 예가 더 있으리라 생각되나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⁵⁰⁾

주 49) 본 연구가 수집한 자료에는 의문문의 형태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문장에 오름억양을 사용하는 예도 나타났으나(예, 아래의 밑줄 친 문장), 드물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말하는 이의 특별한 태도가 개입된 경우라고 본다.

예) 여₁: 이불은 아까 백화점에서 본 걸루 되겠/든?

여₂: 아이, 엄^ㅂ만.

지금 이불이 문계/유? (0594~0596)

즉, 이런 문장에는 내림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오름억양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무표적(unmarked)이라고 생각한다.

50) 자료 중에 단언(결론짓기)을 하는 의문문이면서 내림조가 없이는 예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나타나긴 하나 그 수가 적어서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① [전화] 남: 교수만씨 / 맥이죠?

여: 아, 네. 부장님이세요,요? (0147~0149)

② 그러면, 부모님 두 분만 살고 계시/구? (0460)

①여의 경우는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의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②의 경우는 여러 질문을 함으로써 부모님 두 분만 살고 계시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자료 참조).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내림조 억양은 부가의 의문문이나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에서의 억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앞으로 좀 더 많은 예를 찾을 때까지 보류해 두기로 한다.

4.3. 말하는 이의 태도 표현 및 그 밖의 기능

본 절에서는 4.1.과 4.2.에서 설명되지 않는 문장들을 대상으로 통사적 기능이나 언표내적 행위 수행 기능 외에 억양이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보기로 한다. 그런데, 해당 문장유형에 따른 억양과 반대형의 억양이 엇비슷한 데에는, 특히 내림조가 으뜸조로 바뀌는 데에는 으뜸조의 생리학적 특성—조음시 내림조는 후두근육의 긴장이 일정하나 으뜸조는 후두근육의 긴장이 증가됨—으로 보아 단순히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리라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시하는 예에 사용된 억양이 과연 어떤 규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적인 예외인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서술문의 예를 검토하여 보자.

(39) 뛰느라고 목이 탔는데 아주 V시원한데. (0137)

(40) 정말 웃기/네. (0152)

(41) 부모님 돌아가신 지 거의 십년이 가까와 오/거든요. (0243)

(42) ~가장 사랑을 해주셨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애/요.

(0246)

(43)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딸 가진 죄를 얘기한단 말애/요.

(0254)

(44) 지금 다 저만치 다 뛰어갔/어. (0049)

예 (39)~(44)는 모두 서술문이지만, 으뜸조를 사용하고 있다. 만일 이들을 내림조로 읽어본 후 으뜸조로 읽어본다면 어휘에 의한 기본적인 의미는 같으나 말하는 이의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위 예에 내림조를 사용한다면,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의 관심이나 호응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해버리는 데 그치거나, 단호하게 또는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태도가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위 예에서와 같이 으뜸조를 사용하면, 말하는 이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듣는 이의 관심이나 호응을 얻기를 원하는 태도가 표현된다고 본다.

이어 의문사 의문문의 예를 검토하여 보자.

(45) ㄱ. 여 : 어어, √누굴까요?

ㄴ. 남 : 글썄, 아침부/터? (0143 ~ 0144)

(46) ㄱ. 다방주인 : 뭘 드시/겠어요?

ㄴ. 손 남 : 응, √잠깐만. (1139 ~ 1140)

만일 (45 ㄱ), (45 ㄴ), 그리고 (46 ㄱ)을 내림조로 읽는다면 의문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호기심 외에는 말하는 이의 별다른 태도나 감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무적인 느낌이 들거나, 무관심, 또는 통명스러움까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으뜸조를 사용하면 (45 ㄱ)과 (45 ㄴ)에서는 말하는 이의 놀란 감정과 강한 호기심이 표현되며 (46 ㄱ)에서는 공손하고 상냥한 태도가 표현된다고 본다.

이어 명령문의 예를 보자.

(47) 기, 다리세요. (0153)

(48) 기다리고 있,어. (0176)

만일 (47)과 (48)에 내림조를 사용한다면 (47)에서는 말하는 이의 사무적인 태도가, 그리고 (48)에서는 야단치거나 엄한 태도가 표현될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오름조를 사용하면 (47)에서는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공손하고 상냥한 태도가, (48)에서는 윗사람의 아랫사람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가 전달된다고 본다. 이는 특히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시키거나 추켜세울 때에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⁵¹⁾

이상에서 우리는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에 따라 해당 문장유형에 상관없이 억양의 형태가 달라짐을 보았다.⁵²⁾ 따라서 이들 억양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의 특별한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섰힌 문장의 유형에 따른 억양과 반대되는 형태를 갖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겠다.⁵³⁾ 이외에도 2.3에서 소개했듯이 같은 형태의 억양으로도 조금씩 변형을 가하여 말하는 이의 특별한 태도나 감정이 표현되기도 한다. 즉, 강세를 받는 음절의 음

주 51) 필자의 평상시의 관찰에 의한 것임. 수집한 자료에는 어린아이와의 대화가 거의 없어서 이런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52) 1. Abe (1955:341)는 이런 억양을 가리켜 '정서적 억양' (emotional intonation) 이라고 칭했다.

2. 본문에 제시한 예 외에도 또 다른 태도와 감정을 표현하는 예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확실히 기술할 수 있는 예만 제시하였다.

53) Abe (1955:341)는 이런 경우를 통사적 억양 (syntactical intonation) 과 정서적 억양 (emotional intonation) 이 충돌한다고 하며 이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서적 억양이 통사적 억양을 지배한다고 한다.

높이의 높고 낮음이나, 끝음절의 음높이의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정도, 강세의 전진과 후퇴, 또는 음고의 방향변화의 수 등에 따라 자기 다른 태도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54)

이어 다음의 예를 검토하여 보자.

(49) ㄱ. 남: 그 친군 부모님 밑에서 여유있게 공부하고 있는 데 같은 사람하곤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ㄴ. 여: 누가 여유있게 학교를 /다녀요?

ㄷ. 남: 아/년가요? (0821 ~ 0823)

(50) ㄱ. 남₁: 아마 제철소에선 A떠났을 겁니다.

ㄴ. 남₂: /떠났을 겁니다?

ㄷ. 아니, 건설현장에서 그때워 미래형 담변이 어디 있
나? (0548 ~ 0550)

(51) ㄱ. 남₁: 윤주가 종적을 감춘 뒤, 순간 난 \당신을 생각했어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ㄴ. 남₂: /불쌍해요? (1165 ~ 1167)

(52) ㄱ. 남₁: 저, 제가 바로 A이 영식입니다, \소장님.

ㄴ. 남₂: /이 영식?

ㄷ. 남₁: 예. 인옥씨하\구...

ㄹ. 남₂: /뭐라구? (0564 ~ 0568)

주 54) 자세한 것은 이 현복(1984:82~101) 참조할 것.

(53) ㄱ. 남 : ~정말 저의 집사람 여기 안/왔었나요?

ㄴ. 여 : ~며칠 전에 \다녀갔어요.

ㄷ. 남 : /다녀 갔다구요? (0706 ~ 0708)

예 (49ㄴ) 과 (50ㄴ), (51ㄴ), (52ㄴ), (52ㄷ), (53ㄷ) 은 모두 반복표현으로서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하여 반복질문하고 있다. 이들은 오름조 억양을 사용하여⁵⁵⁾ 상대방이 한 말 중, 알아듣지 못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하여 되묻거나 (51ㄴ), 정확히 알아듣긴 했으되 상대방의 말이 맞지 않다고 반박을 하거나 (49ㄴ), 비난을 하거나 (50ㄴ), 놀람을 나타내거나 (52ㄷ), 또는 확인을 하고 있다 (53ㄷ). 그리고 이들의 문장유형을 살펴보면 의문사 의문문 (49ㄴ, 52ㄷ), 서술문 (50ㄴ), 소형문 (52ㄴ, 52ㄷ, 53ㄷ), 그리고 종결어미 '-어' 를 가진 문장 (51ㄴ) 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어떤 유형의 문장이건간에 반복질문에 사용하려면 오름조로 발화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⁵⁶⁾

이와 관련하여 반복진술하는 문장에서의 억양형태를 살펴보면 아래의 예 (54ㄷ) 과 같이 자신이 이미 한 말에 대해 반복진술하든, 예 (55ㄷ) 과 같이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진술하든간에 모두 내림조 억양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5) 1. 자료상에 반복질문하는 문장으로서 평탄조로 끝나는 예가 나타나기는 하나 아주 드물다. ['그런가요?'](1171)]

2. 반복질문하는 문장에 사용되는 억양의 형태와 기능에 관해서는 이미 장 석진(1981:18)에서 언급되고 있다. 보통의 오름 억양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확인할 때, 평탄 억양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표시할 때, 그리고 온옴 억양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놀람이나 믿기 어려움 등의 감정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고 함.

56) Liberman(1967:136)은 영어에서 반복질문에 쓰인 문장이 오름조 억양에 의해 서술문과 구분된다는 점에서 반복질문하는 문장을 '억양 의문문'(intonation question) 이라고 했다.

(54)ㄱ. 여 : 딸인가 ㅏ봐.

ㄴ. 남 : 뭐야?

ㄷ. 여 : 딸ㅏ요

(0109 ~ 0111)

(55)ㄱ. 기자 :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ㄴ. 학생 : 민\영규 선생님요.

ㄷ. 기자 : |아, 민 영규 선생님\요|

(0212 ~ 0214)

5. 의문문과 오름억양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반적 고찰

본 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문문과 오름억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일반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리의 말소리는 허파로부터 나오는 날숨의 기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숨을 다 내쉴 때면 허파로부터 나오는 공기의 유출이 그치면서 성문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류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고 발성의 기본진동수가 이에 정비례하여 떨어진다. 이러한 발성의 기본진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매개변수는 후두근육의 긴장인데, 보통 후두근육의 긴장이 일정하면 숨을 다 내쉴 때에 기본진동수가 떨어진다. 숨을 다 내쉴다는 것은, 문장이 길어서 중간에 숨을 쉬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숨을 다 쉴 때에 기본진동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문장이 내림조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성의 기본진동수가 문장 끝에서 떨어지는 것은 언어생활의 보편소의 하나이다(Lieberman, 1967: 26).

우리말의 경우, 3장과 4장에서 보면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 등의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 한, 네/아니오 의문문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문장들이 내림조로 끝나고 있으므로 언어보편적이나 네/아니오 의문문만은 오름조로 끝나 앞에서 언급한 언어보편성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Lieberman(1967: 129~143)은, 오름조로 끝나는 문장들은 예로부터 영어와 그의 언어에서 의문문과 관련이 있어왔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또 다른 언어보편성을 논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말의 네 / 아니오 의문문에 으뜸조가 사용되는 현상이 Liberman 이 주장하는 또 다른 언어보편성에 기인한 것인가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Liberman 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Liberman 은 영어를 비롯한 16 개 언어를 대상으로⁵⁷⁾ 의문문의 형성방법과 억양을 관련지어 봄으로써 우선, 으뜸조 억양이 의문문을 서술문과 구별해 주는 음성적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 언어에서 사용하는 의문문의 형성방법은 첫째, 의문문 특유의 첨사나 낱말 또는 구를 삽입하거나 둘째, 통사적 조작 즉, 어순의 도치에 의하거나 셋째, 어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인데 이들 언어 중에는 이 중 한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세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는 언어까지 들어 있다. 그리고 첫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의문문은 모두 내림조로 끝나고 둘째와 셋째 방법에 의해 형성된 의문문은 모두 으뜸조로 끝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Liberman 은 이 16 개 언어의 의문문은 모두 기저의 구절표지가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를 가지고 있으며⁵⁸⁾ 이러한 기저 구절표지에 통사부와 음운부가 작동한 후에도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가 남아 있으면 억양형태에 변함이 없으나(내림조)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가 탈락되면 대신 억양이 으뜸조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변형을 거친 후의 음성적 출력은

주 57) 16개 언어는 여기에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Liberman (1967 : 130) 참조할 것.

58) 이는 Liberman(1967)이 Katz and Postal(1964)과 Chomsky(1965)의 견해를 따랐음을 밝히고 있다.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으뜸조로 끝난다는 것인데 이를 실제 언어자료에 근거한 실체적 언어보편소 (substantive linguistic universal)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으뜸조는 탈락변형을 입은 기저 구절표지의 회복가능성 (recoverability) 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⁵⁹⁾ 이 으뜸조 억양과 탈락되는 기저 구절 표지간에 상호 거래관계 (trading relationship) 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서 우리말 의문문의 형성방법과 억양과의 대응관계가 Liberman 이 제시한 대응관계에 들어맞는지, Liberman 의 거래관계라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의문문과 억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지를 주로 영어와 비교하면서 순서대로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우리말에는 의문사와 의문문 특유의 어미가 있고 어순의 도치가 없으므로 앞에서 소개한 첫째와 셋째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의문사와 의문문 특유의 어미를 사용하거나 (2) 의문사와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를 사용하거나⁶⁰⁾ (3) 의문문 특유의 어미를 사용하거나 (4)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를 사용한다. 여기서 방법 (1), (2), (3)은 Liberman 의 첫째 방법에 해당되고 방법 (4)는 어미가 여러 문

주 59) Katz and Postal (1964) 이 주장하는 탈락 또는 대치변형에 의하여 제거되는 기저 구절표지에 대한 '회복가능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60) '-지'도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긴 하나, 의문문에서 다른 어미와 대립을 보이므로 '-지'는 제외시킨다.

장유형에 두루 쓰여서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Liberman의 세째 방법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들에 사용된 억양은 방법 (1)과 (2)에 의해 형성된 의문문(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내림조이고 방법 (3)과 (4)에 의해 형성된 의문문(네/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오름조이다(4.1.참조). 방법 (1)과 (2), 그리고 (4)에 의해 형성된 의문문은 억양과의 대응에서 Liberman의 것과 일치하나 방법 (3)에 의한 의문문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방법 (3)에 의해 형성된 의문문은 의문문 특유의 어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Liberman에 따른다면 내림조가 없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오름조가 없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Liberman이 우리말과 같은 어미체계가 특이한 언어를 미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어미체계가 특이하다는 것은 한 언어의 어미체계 내에 각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어미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앞에서 Liberman이 제시한 의문문의 형성방법과 억양의 대응관계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의문문 특유의 어미가 쓰이더라도 우리말과 같이 어미체계가 특이한 언어에서는 오름조가 사용된다라는 단서를 붙여야 할 것이다.⁶¹⁾

그러면, 이어 16개 언어의 의문문 형성방법과 억양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Liberman이 제시한, 탈락되는 기저 구절표지와 오름조 억양 간에 거래관계(trading relationship)가 있다라는 설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논하여 보자.

주 61) 단, 의문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의문사가 의문문임을 표시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문문의 기저 구조가 의문문을 표시하는 형태소 Q와 Wh- 형태소를 가지고 있다가 탈락변형을 입으면 탈락되는 기저 구절표지의 회복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으뜸조가 없치게 되고 탈락변형을 입지 않은 의문문은 내림조로 끝난다라는 주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에 의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첫째, 영어의 경우 탈락되는 기저 구절표지의 회복가능성은 굳이 으뜸조 억양에 의하지 않더라도 어순의 도치에 의해 보장된다.

둘째, 영어에서 탈락변형을 입지 않은 의문문(의문사 의문문)은 대신 Wh- 형태소의 전치 변형을 입게 되는데, 굳이 으뜸조 억양을 탈락변형하고만 관련지어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본다.

셋째, 우리말에서 의문문 특유의 어미를 가진 의문문을 보면, 이러한 탈락변형을 입지 않았는데도 으뜸조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저구조와 변형을 토대로 한 Liberman의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없으며 언어현상을 단지 변형생성 문법의 틀에 끼워맞춘 격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본 연구가 시도하려는 설명의 근거가 되는 몇 가지 기본 전제를 들고 이어 구체적인 설명을 전개하기로 하자.

첫째, 으뜸조는 문미억양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 내림조는 숨을 다 내쉬는 동안, 즉 문장을 다 마치는 동안 후두근육의 긴장이 일정한 데 비해 으뜸조는 끝에 가서 후두근육의 긴장이 증가되어, 으뜸조가 내림조에 비해 노력이 더 들기 때문이다. 즉, 숨을 내쉬는 동안 조음상의 특별한 조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Liberman, 1967: 53).

둘째, 명령문은 서술문과 의문문에 비해 통사적 제약이 많아서 생산성이 낮다. 우리말을 예로 들면, 2인칭 주어를 가져야 되고(생략 가능), 비상태 동사를 가져야 하며, 보조어간(있었, 겠, 었, 더)이 없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세째, 다음의 예 (1), (2), (3)을 보면,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은 통사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나 의문사 의문문을 고려하게 되면 일대일 대응관계가 사라진다.

- (1) 영화가 밥을 먹었다.
- (2) 영화가 밥을 먹었니?
- (3) 가. 영화가 뭘 먹었니?
 나. 누가 밥을 먹었니?
 다. 언제 영화가 밥을 먹었니?

⋮

한편 의미적으로는 의문사 의문문은 물론이고, 'S가 참이냐?'와 'S 아닌 것이 참이냐?'를 다른 물음으로 간주한다고 규정짓지 않는 한 네 / 아니오 의문문도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래의 예에서 긍정과 부정의 서술문 (4가)과 (5가)에 대응하는 네 / 아니오 의문문 (4나)과 (5나)의 의미가 같기 때문이다.

- (4) 가. 영화가 밥을 먹었다.
 나. 영화가 밥을 먹었니?
- (5) 가. 영화가 밥을 먹지 않았다.
 나. 영화가 밥을 먹지 않았니?

그러나 H.S. Leonard는 서술문의 'concern' 과 'topic of concern' 을 구분하고 의문문의 'topic of concern' 을 의문문의 정답으로 간주함으로써 의미면에서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 간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찾아냈다. 만일 여기에 의문사 의문문을 고려한다면 일대일 대응관계는 다시 깨져 버린다 (Hamblin, 1967:50). 이와 같이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은 통사, 의미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되나 의문사 의문문을 고려하게 되면 이 관계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의문사 의문문의 위치는 무척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네째, 우리말에서는 의문사와 부정사의 음성적 실현이 같고⁶²⁾ 영어에서는 의문사와 관계사의 음성적 실현이 같다.

다섯째, 대화상에서 상대방이 일부러 문장 끝을 흐리지 않는 한, 상대방이 한 말 중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큰 부분은 앞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화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겠으나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보통 말을 시작하여서야 비로서 듣는 이의 신경이 말하는 이에게로 쏠리게 되어 시작되는 부분은 놓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섯째, 한 문장 전체의 억양에서 문장유형을 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문미부분의 억양곡선이다.

이제 이러한 기본 전제들 바탕으로 우리말과 영어에서 네 / 아니오

주 62) 인국어 대부분이 의문사와 부정사가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고전 피랍어는 우리말처럼 의문사와 부정사로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단, 우리말과 다른 점은 약센트의 있고 없음에 따라, 그리고 문장에 쓰이는 위치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점이다. [Lyons(1977: 758 ~ 759) 참조]

의문문에 으뜸조가 사용되는 데 대한 설명을 전개하기로 하자.

명령문은 생산성이 낮고 의문사 의문문은 서술문과의 대응에서 모호한 위치에 있으나,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은 둘 다 생산성이 높고 통사, 의미적으로 일대일 대응이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언어생활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 간에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뚜렷한 구분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어미에 의해 문장의 유형이 표시되기도 하나, 여러 문장유형에 두루 쓰이는 어미가 있어서 형태, 통사적으로 유형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영어에서는 어순의 도치라는 구분장치가 있기는 하나 이것의 변별력 또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영어에서 어순의 도치는 문장 앞부분에서 일어나는데 앞부분은 대화시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말이나 영어에서는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간의 형태, 통사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불완전하므로 이들 간의 뚜렷한 구분은 음성적인 차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문미부분의 억양형태를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에서 서로 반대가 되게 함으로써 문미부분만 듣고서도 이들 간에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내림조와 으뜸조의 억양 중 어느 것이 서술문에 사용되고 어느 것이 네 / 아니오 의문문에 사용될 것인가이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의 한 과정으로서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말에서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 사이에는 서로 구분이 안되는 경우 — 서술문과 의문문에 두루 쓰이는 어미를 가진 경우 — 도 있으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문장유형 특유의 어미가 있어서 대부분, 문장

유형 특유의 어미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그러나, 의문사 의문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 간에는, 이들에 사용되는 어미가 같을 뿐더러 의문사와 부정사의 음성적 실현이 같으므로, 보다 완전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보다는 네 / 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 간의 구분장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영어에서도 아래의 예 서술문 (6)과 의문사 의문문 (7) 간에는, 의문사 의문문이 의문사의 전치변형을 입어 뒷 부분에 공백이 생기므로 상호간에 구분이 뚜렷해지나, 의문사 의문문 (7)과 네 / 아니오 의문문 (8) 간에는 첫째, 의문사와 관계사의 음성적 실현이 같고, 둘째, (8)의 관계사 또한 전치변형을 입어 뒷 부분에 공백이 생기므로 (7)과 (8)의 뒷부분의 억양을 제외한 음성적 실현이 거의 같아진다. 따라서 만일 앞부분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이들 간의 구분이 어려워질 것이다.

(6) You have waited for the man.

(7) For whom have you waited ?

(8) Is it the man for whom you have waited ?

다시 말하자면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의문사 의문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 간에도 뚜렷한 구분장치가 필요하며 이 또한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에서와 같이 음성적 차이— 문미억양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일단 종합하면, 우리말과 영어는 일차적으로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 간의 뚜렷한 구분장치가 필요하며 이차적으로는 네 / 아니오 의문문과 의문사 의문문 간의 구분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분장치는 음성적 차이, 즉 억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은 같은 형태의 억양을 갖게 되고 네 / 아니오 의문문은 이들과 반대형의 억양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림조와 오름조 중, 어느 것이 서술문과 의문사 의문문에 쓰이고 어느 것이 네 / 아니오 의문문에 쓰일 것인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데 일단, 생산성이 높고 통사, 의미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 서술문과 네 / 아니오 의문문을 제외한 명령문이나 의문사 의문문은 문미억양의 특수 형태인 오름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즉, 명령문은 다른 문장유형에 비해 통사적 제약이 많아서 생산성이 낮으며 의문사 의문문은 서술문과 의문문과의 일대일 대응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노력 절약 원칙에 의거, 이 두 유형의 문장에는 힘이 더 드는 오름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서술문에서도 의문사 의문문에서와 같이 내림조를 사용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네 / 아니오 의문문에서는 오름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가능해진다.

이상에서 우리는 문미억양의 특수형태인 오름조와 의문문과의 관계에 대한 Liberman (1967) 의 설명의 타당성 검증에서 출발하여 우리말과 영어에서 네 / 아니오 의문문에 오름조 억양을 사용하는 이유를 밝혀 보았다.

6. 결 론

한국어 억양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는 문미억양의 형태와 기능을 살펴보고 나아가 의문문과 오름억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로 영어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일반 언어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자료,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억양의 기능을 밝히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자료를 억양의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억양이 문장에 끼치는 영향 즉, 기능을 밝혔다. 그 결과 억양은 문장유형을 표시하는 통사적 기능(인여적 기능과 변별적 기능)과 일부 간접 화행문에서 그 문장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말하는 이의 특별한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특이한 현상으로서, 종결어미 '-지'를 가진 대부분의 의문문에 사용되는 억양은 '-지' 이외의 다른 어미를 가진 의문문에 사용되는 억양과 반대되는 형태의 억양이 사용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5장에서는 의문문과 오름억양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Liberman (1967)의 설명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였고, 그 결과 그 설명은 타당성이 없음을 밝혔다. 이 관계에 대하여 본 연구 나름의 설명을 시도하여 보았다.

우리말 문미억양에 관한 연구가 보다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문미억양과 대립되는 문중의 억양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부가 의문문이나 수사적 해석을

받는 의문문 외에 억양에 의해 언표내적 행위가 수행되는 간접 화행문의 또 다른 예들을 찾아보지 못하였으며, 억양이 표현해 주는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이다. 그리고 우리말과 영어에서의 오름억양과 의문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에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본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일 많은 훌륭한 연구가 나와 수정, 보완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의 끝을 맺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 김 승곤(1983) 「음성학」, 정음사.
- 박 창해(1963) "국어의 얽힌 음운에 관한 연구 -Suprasegmental Phonemes -", 「동방학지」 제 6집, 연세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43.
- 이 기갑(1983) "전남방언의 매편이름씨 -그 공시대와 통시대-", 「언어학」 제 6호, 한국언어학회, 73-91.
- 이 승녕(1960) "현대 서울말의 악센트 고찰", 「국어학 논고」, 동양출판사.
- 이 천복(1971) "현대 서울말의 모음 음가", 「어학연구」 7-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7-52.
- _____ (1973) "현대 한국어의 Accent",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19권 합병호(통권 28호), 113-128.
- _____ (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5-25.
- _____ (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 연구", 「언어학」 제 1호, 한국언어학회, 131-143.
- _____ (1977) "서울말과 표준말의 음성학적 비교연구", 「언어학」 제 2호, 한국언어학회, 167-184.
- _____ (1982) "한국어 리듬의 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4호, 대한음성학회, 31-48.

- 이 현복(1984) 「한국어 표준발음」, 대한음성학회.
- 장 석진(1981) "국어의 반복표현", 「말」 제 6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89-112.
- _____ (1983) "질의문의 화행",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월례어학세미나 발표부문.
- 전 광천(1979) "중부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방언」 1, 72-79.
- 정 인섭(1965) "우리말 악센트는 고저 악센트다", 「중앙대학교 논문집」 제 10호, 9-50.
- _____ (1973) 「국어 음성학 연구」, 휘문출판사.
- 최 현배(1971) 「우리 말본」(네번째 고침판), 정음사.
- 허 응(1970) 「국어 음운학」, 정음사.
- _____ (1983) 「국어학」, 샘문화사.
- Abe, Isamu (1955) "Intonational Patterns of English and Japanese", in Bolinger (1972). 337-347.
-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 Bolinger, D. (ed.) (1972) *Intonation*. Harmondsworth: Penguin.
- Chang, Suk-Jin (1973) *A Generative Study of Discourse: Pragmatic Aspects of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Language Research 9-2 (suppl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apallaz, Marguerite (1964) "Notes on the Intonation of Questions in Italian", in Bolinger (1972). 359-366.
- Crystal, D. (1969) *Prosodic Systems and Intonation in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m, Sheon-Gi (1971) *Phonetics of Korean*. Seoul: Daehan Textbook Printing Co., Ltd.
- Gimson, A.C. (1970) *An Introduction to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2nd ed., London: E.L.B.S. & E. Arnold Ltd.
- Hamblin, C.L. (1967) "Question", in P. Edwards, 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II. New York: Macmillan and Free Press. 49-53.
- Jones, D. (1956) *Pronunciation of English*. 4t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60)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9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 Ladd, D. Robert Jr. (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Bloo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Lee, Hyun-Bok (1964) *A Study of Korean (Seoul) Intonation*. M.A. thesis presented to University of London.
- Lee, Ik-Hwan (1980) *Korean Particles, Complements and Questions: A Montague Grammar Approach*.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iberman, P. (1967) *Intonation, Perception, and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r, H.E. and W.G. Blandford (1959) *A Grammar of Spoken English on a Strictly Phonetic Basis*. 2nd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 Pike, K.L. (1967) *The Intonation of American English*. 11th printing (1st printing, 1945).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Searle, J.R. (1969) *Speech Acts*. London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9) *Expression and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eet, H. (1892) *New English Grammar, Part II*. Oxford: Clarendon Press.
- Trager, G.L., and H.L. Smith (1951) *Outline of English Structure*. Norman, Okla.: Battenburg Press.
- Ward, J.C. (1945) *The Phonetics of English*. 4th ed., Cambridge: W. Heffer & Sons Ltd.
- Wells, J.C. & G. Colson (1971) *Practical Phonetics*. London: Pitman Press.
- Wijk, A. (1966) *Rules of Pronunciation for the English Langua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Sentence Final Intonations in Korean

Lee, Suk-Hyang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It attempts to describe the forms and the functions of sentence final intonations in Korean, and it also attempts to deal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questions and rising intonation for Korean and English.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Chapter 2, the version of Korean(standard Korean) which this study is assumed to analyse, the sources of material involved, and the method and scope of analysis are stated. Chapter 3, which is a preparatory stage for the analysis of the function of intonation in standard Korean in Chapter 4, classifies the material according to the type of intonation used.

In Chapter 4, the discussion is entirely devoted to the function of Korean intonation. The conclusions of Chapter 4 are as follows: Firstly, intonation contours in Korean have the function of distinguishing the sentence types; the falling contour marks declaratives, Wh- interrogatives and imperatives, while the rising contour marks yes/no interrogatives. However,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in the interrogative sentences with the inflectional ending '-chi', a very different phenomenon is observed; that is to say,

most of yes/no interrogatives are marked by the falling contour and all of Wh- interrogatives by the rising one. Secondly, the falling contour in Korean is typically employed in performing the illocutionary act of assertion in rhetorical and tag questions. Thirdly, the intonation in Korean contributes to express the speaker's special attitudes or emotions.

In Chapter 5,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questions and rising intonation is examined, Liberman's theory turns out to be untenable. Furthermore, this thesis shows that an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questions and rising intonation should have its basis on general linguistic facts.

(서울 태 대학원 언어학과)